

| 발간사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50년사를 발간하며

‘산업미생물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올해로 50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只今)의 우리 학회의 위상은 학회 정관 제1장 1조에 명기된 설립 목적, 즉,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미생물(공)학, 생명공학 및 관련 융합 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 발전시켜 보급하며 나아가 이들의 학술과 기술의 진흥으로 산학협동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에 철저히 근거하여, 5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선배, 동료, 후배 회원들께서 일구어 놓으신 학술활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시점에서 반백년 학회의 여정을 기억하고 서술하기 위하여, ‘50주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많은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기억이란 탈색되고 윤색되면서 선택적으로 저장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나름 “다르게 적힌 서로의 추억”을 모아 이렇게 ‘50주년사’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미래의 꿈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유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학회의 지난 발자취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서술이 앞으로의 우리 학회를 예측하고 설정하는 잣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학회 50년사 발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꺼이 쌓여온 기억의 엄중한 무게로 인한 ‘구심력’에 끌려 과거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미래의 꿈을 향한 들뜸으로 인한 ‘원심력’에 튕겨 학회가 가야 할 본연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균형을 갖춘 범위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회의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전/현직 회장 및 간사장 등으로 구성된 '5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50년사 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홍순광 위원장 그리고 사무국 임직원께 우리 학회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43대 회장
이규호